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11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라 · 누가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나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7장 ~ 누가복음 9장
- 14 1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 22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10장 ~ 누가복음 15장
- 30 2과 왕이 오신다
- 38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16장 ~ 누가복음 21장
- 46 3과 감사의 찬송
- 54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22장
에스라 1장 ~ 에스라 5장
- 62 4과 노아
- 70 매일성경묵상 에스라 6장 ~ 에스라 10장

11

November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제7차 성찬식	5 누가복음 10장	6 누가복음 11장	7 누가복음 12장
11	12 누가복음 16장	13 누가복음 17장	14 누가복음 18장
18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19 누가복음 22장	20 에스라 1장	21 에스라 2장
25	26 에스라 6장	27 에스라 7장	28 에스라 8장

December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누가복음 7장

2 누가복음 8장

3 누가복음 9장

8 누가복음 13장

9 누가복음 14장

10 누가복음 15장

15 누가복음 19장

16 누가복음 20장

17 누가복음 21장

22 에스라 3장

23 에스라 4장

24 에스라 5장

29 에스라 9장

30 에스라 10장

교외 주요 일정

11월 4일

제7차 성찬식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나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30년간의 고된 삶을 사셨고
3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복음이 흐려져가는 이 때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2012년 11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정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상록종양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1

목요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27절). 그 준비에 있어서 단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요한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28절)라고 격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세례 요한)보다 크니라”(28절).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로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결코 세례 요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찬송가 519장

묵상노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눅 7:28)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Lk. 7:28)

• 백부장(2절) :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오늘날 대위 정도의 계급에 해당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8장
찬송가 542장

묵상노트

예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믿음이 없는 '길 가'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견실한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4~15절). 이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는 광풍에 놀라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22~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48절)고 하시며 그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또한 회당장의 딸을 살려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50절)고 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며, 믿음만이 참된 영적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문제는 믿음이기보다는 의심과 걱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고침의 근거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이 아닌, 세상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려는 죄 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믿음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 회당장(41절) : 회당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권위로 주된 임무는 예배를 지도하는 일이다. 공중기도나 성경 봉독할 사람을 정하고 자격을 갖춘 설교자들을 초빙하여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일을 맡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눅 8:48)

Then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Lk. 8:48)

기도제목

①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담당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

3

토요일

누가복음 9장
찬송가 439장

묵상노트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1~2절).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 주의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6절). 예수께서도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11절).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복음에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22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 이 놀라운 복음이 완성될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며 핍박과 박해입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23~24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롬 8:9).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갈 2:20). 그러기에 자기 부인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Lk. 9:23)

•분봉 왕(7절) : 헬라어 ‘테트라아르케스’로서, ‘테트’(넷)와 ‘아르케’(통치)의 합성어이다. 즉 한 주를 네 등분하여 각각의 분리된 주를 통치하는 왕을 일컫는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나의 감사는 십자가

”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일 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한 것을 감사하고, 사업이 형통한 것을 감사합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아프고,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월요일 ☐ 누가복음 10장6 화요일 ☐ 누가복음 11장7 수요일 ☐ 누가복음 12장8 목요일 ☐ 누가복음 13장9 금요일 ☐ 누가복음 14장10 토요일 ☐ 누가복음 15장

1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 초점 |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베드로전서 1:18~19

⁽¹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¹⁹⁾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찬주일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효력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진실로 보배롭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보혈의 참된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죄인들이 생겨났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그들을 의인 되게 하였습니다.

롬 5:18~19 _____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옮기셨으며,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은혜의 자유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속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는 지워 집니다.

엡 1:7 _____

행 3:19 _____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우리 지체들 서로
예게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엡 2:13 _____

요일 1:7 _____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
나 지금 그의 보혈이 있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합
니다. 무흠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
은 고백했습니다.

골 3:1~3 _____

갈 2:20 _____

평화 ■ 준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골 1:19~20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휴가, 이완 요법, 돈, 마약 등 그 어떤 세속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어린 양의 보혈은 영원토록 완벽한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평화를 누렸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요 14:27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평화가 내려왔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평화가 여러분의 영을 덮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히 4:16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답입니다.

히 10:19~22

히 9:22

※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담대함으로 주의 만찬에 나와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씻어 없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기를, 또한 주님의 보혈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 2012년 마지막 성찬식에 대한 기대감을 써 보십시오.

고전 11:24~25

| 믿음의 기도 |

- 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은혜로 충만한 2012년 제7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 ③ 그리스도의 보혈로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
산송가 436장

묵상노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그때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상기시키십니다(26절). 그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27절). 이에 예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재차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에서 묘한 대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돌파야 할 이웃’이 누구지를 묻고 있으나, 예수님의 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단지 ‘강도 만난 자’임을 강조하시고 그런 자에게 필요한 이웃은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태는 ‘거의 죽은 자’(30절)와 같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엡 2:1)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된 삶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레위인(32절) :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반면 이들은 예물들을 관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며 예배에 관계되는 여러 실제적인 의무를 수행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Lk. 10:3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합니다(1절). 이에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2절)고 하시며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와 요구에 참답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조차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밖에 지을 것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까지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지하기는커녕 나를 창조하신 분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참 빛을 비취 주셨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기도를 가르쳐주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k. 11:13)

누가복음 11장
찬송가 363장

묵상노트

• 평도장한 무덤(44절) : 평도장한 무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 중에 살고 부정에 게 되는 것처럼 버리새 안이 의식과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내 평생의 소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7

수요일

분쟁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2장
찬송가 350장

묵상노트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된 화목과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화목을 위한 화목을 조장하지 않으며, 동시에 평화를 목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오직 복음 그 자체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만 신자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31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신자는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22~30절). 세상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살지만 신자는 매 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깨어 있습니다(35~48절).

신자와 불신자는 이렇듯 서로 다르기에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화해보다 분쟁이 앞서며, 평화보다 다툼이 선행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기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주어지는 핍박이 있는 것이지 결코 분쟁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주도권은 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적대적 자세이며 태도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54~59절).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전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요 1:11), 도리어 미워하였습니다(요 15:18). 세상은 그를 믿는 신자들도 미워합니다(요 15:19). 이것이 신자의 실존적 삶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설적인 삶입니다(마 5:10~12).

• **분쟁(52절)** : 분쟁의 성격은 비극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분쟁이 최악의 상태인 깨달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며 그 결과는 혈연관계마저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눅 12:51)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Lk. 12:51)

기도제목

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복음에만 매인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8

목요일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1~9절). 예수께 두어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1절)에 관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흠’을 잡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그 문제의 정치적, 외부적 의미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시고 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촉구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3,5절). 어떤 것의 동기와 목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죽음과 불행 그 자체이며, 결국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이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사역의 시작부터 줄곧 하나의 복음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곧 회개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휟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느끼는 자, 그는 곧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5)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Lk. 13:5)

누가복음 13장
찬송가 326장

묵상노트

• 빌라도가 ... 섞은 일(1절)
: 여러 명의 갈릴리인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 당하였다는 보고 내용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여 추측하고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제자 됨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4장
찬송가 341장

묵상노트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27절). 주님께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cannot be my disciple) 제자의 조건과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의 본질적 존재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서’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아니라, ‘제자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코 제자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제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나의 인생 속에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곧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1). 진실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혹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수종병(2절) : 개역성경에는 ‘고창병’이라 번역된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체강에 혈장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로 대개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신장이 병들었을 때 발생하고 얼굴과 손, 팔, 다리 등이 붓고 실감이 물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Lk. 14:27)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10

토요일

‘잃은 양의 비유’ (1~7절)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8~10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11~32절)입니다. 이 비유들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을 ‘찾고 있는 어떤 사람’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어떤 여자’,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 죄인인 우리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심도 아니요 오직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비유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1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18절).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찬송가 525장

묵상노트

• **드라크마(8절)** : 헬라의 은화 명칭. 어원상 드라크마는 ‘한 줌의 동전’의 뜻으로 소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마 은화인 데나리온과 같이 하루 품삯의 가치 정도이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눅 15:18)
I will set out and go back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Lk. 15:18)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온유한 주님의 음성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사역

선교훈련을 받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기를 몇 번했다.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던 중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결단하고 내 몽골 팀에 합류했다. 서울에서의 팀 훈련 과정 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파송을 받아 선교지를 향해 떠났다. 출발부터 교통이 원활치 못하여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사역지에 도착해서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곤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역지에 도착하여 선교를 하였다.

우리 팀에서 나만 선교가 처음이라 나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다. 선교를 거부하는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였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준비된 자가 해야 하는 거구나'였다. 팀장이나 팀원 모두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기 부인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팀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
기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며 전력을 다했다. 또한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란 없다”는 어느 권사님 말씀처럼 사역지에서 보여진 많
은 증거들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다.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는 안타
까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되어 많이 힘들었다.

주님의 간섭하심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부정할 수가 없었다. 뿌려진 복음
의 씨앗은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는다. 어눌한 말로 증거한 복음이지만 믿는다
고 고백한 저들의 대답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십 년 후에 변화될
그 땅을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드린다.

유성희(집사, 8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누가복음 16장13 화요일 ☐누가복음 17장14 수요일 ☐누가복음 18장15 목요일 ☐누가복음 19장16 금요일 ☐누가복음 20장17 토요일 ☐누가복음 21장

2

왕이 오신다

The King Is Coming

| 초점 |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본문 | 요한계시록 19:11~2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¹²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¹³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¹⁴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¹⁵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¹⁶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¹⁷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¹⁸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¹⁹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²⁰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²¹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짐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놀라운 기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사 7:14 _____

미 5:2 _____

우리는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도래할 왕국을 종종 경시합니다(마 2:1~2). 왕 중의 왕은 베들레헬에서 나심으로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을 아들이 다윗의 왕좌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눅 1:32~33).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이 구속, 휴거, 그리고 계시를 대조시켜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실 왕

주님은 오실 왕이십니다.

계 19:11~13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요 1:1,14).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떠나 맨 처음 마리아의 자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기적의 대속사역이었습니다(빌 2:5~8).

※ 아래의 성구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십시오.

눅 2:11~12 예수님의

벧전 1:18~19 예수님의

살전 4:16~17 예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죄하셨던 삶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지금 그분의 옷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오셨던 우리 왕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위엄 있는 왕

주님은 명령하시는 왕이십니다.

계 19:14~15

이 사령관은 매우 위엄이 있어 천국 군대 전체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에서의 상황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군사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으며, 이는 어린 양의 혼인예식에서 교회가 입을 옷입니다.

계 19:7~8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_____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_____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교회는 천국 군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군사들은 자신들의 왕과 같이 백마를 타고 위대한 사령관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훈련하면서 날마다 우리 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되는 패배의 삶이 아닌,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승리의 왕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계 19:16~18

아마겟돈의 전쟁에서는 아주 큰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실 것이며,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자가 되실 것이며, 주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 19:19~20

이 세상의 군대는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 대항할 것이지만, 그들의 무기는 우리 왕의 능력에 필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왕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합시다. 정복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탄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왕 중의 왕의 오심이 기대되십니까? 만주의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혜롭고도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영광과 진리로 우리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딤후 6:14~16 _____

계 17:1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찬송가 368장

묵상노트

신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며 갈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더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것들을 위한 수단일 수도, 방법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 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등장인물의 극단적 대치입니다. 상당히 극과 극을 이루는 부자와 거지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13절)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셨습니다(14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태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일 수 없습니다. 비유 속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신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였으나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믿음은 곧 주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 자신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부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 **창지(13절)**: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로 이 말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서 '주인' 이라기보다 '관리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Lk. 16:15)

기도제목

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 회원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3

화요일

누가복음 17장
찬송가 282장

묵상노트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3~4절). 여기서 ‘일곱’이란 수의 의미는 단지 숫자에 있지 않고 상징적 의미에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숫자 ‘일곱’에 대하여 ‘완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의 의미는 계속해서,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 우리에게 용서라는 자질과 특징이 남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남다른 성품과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용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흉악한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삶과 피를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공로에 힘입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눅 17:4)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a day, and seven times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Lk. 17:4)

• 독수리(37절) : 헬라어, '아어토스'는 독수리 궤에 속하는 수레(vulture) 콘도로 보인다. 또는 까마귀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경우이니만큼 콘도르 내지는 까마귀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린 아이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8장

찬송가 565장

묵상노트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16절).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17절)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어린 아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 아이를 나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기뻐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환영하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말씀에서 어린 아이를 연령으로만 이해한다면, 천국에는 어린 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절대적 의존감을 갖는 자를 대변합니다. 반면에 어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른은 자신의 힘과 돈,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의 믿음은 바로 절대적 의존, 참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14절). 어린 아이와 대비되는 어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높고 낮음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인(1~8절)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른의 믿음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 18:17)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Lk. 18:17)

• **여리고(35절)** : 예루살렘 동쪽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도시. 신약 시대에 와서 해를 거듭하며 점점 더 중요해져 갔다. 이 곳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여러 번 이용하신 길로 섰던 사마리아 사람의 배역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기도제목

①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15

목요일

누가복음 19장

찬송가 529장

묵상노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세리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9절). 주님의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공인된 죄인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신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이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10절).

삭개오는 실로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에 당황했을 것이며, 남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절이나 갚겠나이다"(8절).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음성은 단지 삭개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음성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나 같은 죄인'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k. 19:10)

• 열 모나(13절) : 화폐 단위로써 한 모나는 백 드라크마 혹은 백 데나리온에 해당했다. 한 노동자의 일 세 달치 임금에 달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0장
찬송가 171장

묵상노트

• 가이아에게 세를 바치는 것(22절) : 유대의 모든 남자는 안두세를 납부해야 했고 로마의 황제는 전 제국 내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추앙되었다. 그러나 유대의 율법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뿐'이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기에 남세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식민지 통치상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상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 칭하였습니다(44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이 사실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늘 고민하며 간계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반응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에 관한 문제(1~8절)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의 비유(17절),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27~38절) 등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고,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종교성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이 사실을 강조 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42~44절).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뒤늦은 자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아도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반면에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단지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눅 20:44)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Lk. 20:4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17

토요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되는 주제 가운데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 개인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종말론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역사란 시작되는 처음이 있듯이 끝나는 마지막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것과 같이 종국에 가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고 역사의 종말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곧 '인자의 재림'(27절)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주장하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끝'이 아닌 '소멸'이라고 제기하는 철학적 사고는 한결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데에는 일치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종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곧 믿음의 초석이요,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참 신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본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레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35~36절).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항상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의 종말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6)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k. 21:36)

누가복음 21장
찬송가 176장

묵상노트

• 두 렘돈(2젤) :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연보계에 한 렘돈은 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두 렘돈은 현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라고 보여진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현세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내세에 소망을 갖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 장로교가 11월 10일을 감사주일로 지킨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각 교파의 회의를 거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인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념하여 감사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후 수요일을 주일로 바꾸어 현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초기 선교사 중 미국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입국하여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 목요일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아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있다. 가인과 아벨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생활하는 중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창 4:3~4). 노아도 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대(창 8:20). 이러한 감사의 제사가 정리된 것이 절기이다. 절기로서 추수감사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세 절기에서 찾을 수 있다(출



23:14,16).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이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왔으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의 기원을 살피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살전 5:18)이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근본 마음이다(골 3:16).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이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롬 7:25). 아멘.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누가복음 22장

20 화요일

☐ 예스라 1장

21 수요일

☐ 예스라 2장

22 목요일

☐ 예스라 3장

23 금요일

☐ 예스라 4장

24 토요일

☐ 예스라 5장

3

감사의 찬송

Song Of Thanksgiving

| 초점 |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 본문 | 시편 103:1~5

¹⁾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²⁾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³⁾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⁴⁾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⁵⁾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에 기록된 150편 중에서도 이 시편은 가장 웅장한 시 중의 한 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편은 산맥 가운데 눈 덮힌 채로 우뚝 솟은 산꼭대기와 같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읽는 자로 하여금 순수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시를 써 보십시오.

골 4:2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죄의 심각성과 죄 용서의 가치를 통렬히 인식하게 된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정, 건강, 직업, 물질적인 소유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다른 종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초점을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찬양의 감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 103:1

다윗은 이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감사에 게을렀고, 불평하며 항상 투덜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은 7명의 형제들 중 가장 어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비천한 목동이었던 그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진실로 그를 걱정하고 돌보아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 시편 23:4~5, 이사야 40:11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십시오.

감사해야 한다

다윗은 감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 103:2 _____

자신이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인식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살전 5:18 _____

요 3:16 _____

엡 4:30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을 주심은 물론,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아름다운 평화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은총과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십니다.

※ 빌립보서 4:6~8,13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려 본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헤아려 보는 것의 가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103:3~5

다윗이 가장 먼저 헤아린 것은 하나님의 죄 사하심입니다. 다윗은 돈, 권력, 명예는 물론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은총이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 3:2

마 4:17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영생과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치료의 원천이십니다.

롬 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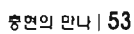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감사는 계속됩니다. 이 찬송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모두 참여하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신과 대화함으로 가슴속에 그가 불렀던 것과 같은 찬송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 시편 103편(1~22절)을 써 보십시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 ②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소서.
- ③ 감사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감람 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장
찬송가 457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감람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39~46절). 그런데 그 기도 장면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습관에 따라’(39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장면, 게다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 하더라’(43절)는 표현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44절)는 표현입니다.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분은 실로 참 인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성정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42절).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기도 가운데 심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속을 위해 성자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길이었고 외로움과 괴로움의 길이었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 유월절 양(7절) : 유월절 제사에 쓰일 양은 나산 월(태양력 4월)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잡는다(출 12:6). 이 때 양 대신에 새끼 염소가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러졌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눅 22:42)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k. 22:42)

기도제목

① 주님의 십자가만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20

화요일

에스라 1장
찬송가 82장

묵상노트

에스라서는 역대하의 마지막 절인 역대하 36:22~23을 그대로 받아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1~3절). 이 조서에는 바사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4~6절). 바사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많은 성전 기물들을 자신이 섬기던 신당에 둔 것을 알고 모두 거두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7~11절).

바사 왕 고레스의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또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한 때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이중 삼중으로 집어삼킨바 되어 국토는 황무지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이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성전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 의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입니까? 그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바랍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스 1:2)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Ezra. 1:2)

• 말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1절) : 고레스는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의 전 영토를 정복하고 바사(페르시아)제국을 창건한 왕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22

목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일곱째 달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야 비로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7~9절).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감격에 겨운 백성의 찬송 소리와 솔로몬 성전의 추억에 잠긴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10~13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2년 2개월이나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귀국 즉시 성전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3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더 우선이었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에 마음이 이끌리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3장
찬송가 210장

묵상노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스 3:8) In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ir arrival at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Zerubbabel son of Shealtiel, Jeshua son of Jozadak and the rest of their brothers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all who had returned from the captivity to Jerusalem) began the work, appointing Levites twenty years of age and older to supervise the building of the house of the LORD. (Ezra. 3:8)

• 일곱째 달(1절) : 민간력으로는 1월 이 달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달로 1일은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는 날, 10일은 속죄일, 15일은 초막절이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언약에 신실한 주님을 믿고 자기만족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지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방해하되

에스라 4장
찬송가 600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며 접근했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반대하자, 건축을 방해하고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1~5절).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막아야 한다며 아하수어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6~16절).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편지를 받고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17~22절).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 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23~24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방 사람(앗수르 왕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 온 자)들이 자신들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앙심을 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방해할 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 땅은 아니었지만 주인들이 비워놓은 땅에 들어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땅의 주인은 이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조건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에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반언약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주님의 성전은 세워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주님의 성전은 진실로 세워졌습니다.

•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14절) : 그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소금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스 4:4)
Then the peoples around them set out to discourage the people of Judah and make them afraid to go on building. (Ezra. 4:4)

기도제목

①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심을 믿고, 더욱 신실하게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으니

24

토요일

다리오 왕 제이 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1~2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닛드네와 스단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을 기다렸습니다(3~5절).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들이 유다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냐고 문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왕의 기쁜신 뜻대로 답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6~17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힘을 얻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런데 또 시비를 걸며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믿음이 생기자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스 5:1)

Now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 the prophet, a descendant of Iddo, prophesied to the Jews in Judah and Jerusalem in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who was over them.(Ezra. 5:1)

에스라 5장
찬송가 501장

묵상노트

• 원년(13절) : 통치를 시작
한 해 즉 재위 제1년(B.C. 559년)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¹⁰¹⁰쁘고

감사하다

”

세상의 잣대가 아닌 믿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니 감사가 물결처럼 출렁거린다.
지연을 주시고 채소와 열매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신 감사한 주수감사절에
많고 많은 감사함으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니 영영색색의 단풍처럼 걸어온 길
그분은 수정 같은 길에 오르막 내리막 길에서도 여전히 안아 주시지 않는가!
선택받은 믿음의 선물 구원받음에 더 기쁘고 감사하다.

잘 그려진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품에 인간 양의 모습이 흡사 나랑 닮았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지체의 연약으로 잘 못 견고 쉽게 지치고,
약간의 의심도 하면서 겉자 하면 쉬자 하기도 하고,
업고 가자 하면서 은근히 특별대우를 받으려 하고,
다른 길로 나가길 더 좋아하고 기웃거리고,
자기 방식의 생각으로 앞서 가기도 하는 그런 나.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맹수의 위협 속에 잘 빠지고
암튼 가만히 두면 생명도 잃을 것 같으니까 권능의 손으로 어린 양을 안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난 늘 만난다.
그 안전한 품에서 대화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니 참 행복하다.
이런 복된 사랑받고 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니 더 감사하다.

최미재(집사, 7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에스라 6장

27 화요일

☐ 에스라 7장

28 수요일

☐ 에스라 8장

29 목요일

☐ 에스라 9장

30 금요일

☐ 에스라 10장

1 토요일

☐ 누가복음 23장

4

노아

Noah

| 초점 |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본문 |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노아에 관한 모든 평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였으며,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시대 동안에 자신의 가족을 양육하였습니다.

창 6:5,11 _____

소름끼칠 만큼 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선한 아내를 만났으며, 아들 셋을 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오늘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지 않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로서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 그리고 노아를 살펴봄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노아의 삶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 6:8~9

노아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를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추구하였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였습니다.

창 6:3

히 11:7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심어린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완전한 자였던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증거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변함없이 헌신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노아의 증거

노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벧후 2:5 _____

노아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의 외로운 망치질은 의로움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신 것처럼 그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마 5:13~14 _____

노아는 자신의 가족 외에는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에게 참으로 실망스러웠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세상 앞에서 계속 진실되게 거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며 그를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지만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좁은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 노아의 증거와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창 7:1 _____

노아는 마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 주셨습니다.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비록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보여준 믿음의 인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던 위대한 실천가였습니다.

※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했던 믿음의 열매를 간증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 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인봉하신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8명의 사람 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내, 아들들, 사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와 진리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노아에게 아낌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버지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가족들은 이혼으로 깨지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폭력이 만연하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도처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후 12:9 _____

살후 2: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dark, rounded object that appears to be the eraser end of a pencil, partially cut off by the edge of the frame. The rest of the page is empty.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에스라 6장
찬송가 495장

묵상노트

닷드내 총독이 보낸 편지를 읽은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 냅니다(1~2절).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 읽은 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성전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3~8절). 또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 하나님께 향기로 온 제물이 되게 하고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9~10절). 마지막으로 이 조서를 변경하는 사람은 왕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한 후 이것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합니다(11~12절).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신속히 성전을 건축했으며,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3~18절).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지켜보던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 내와 그 동료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받고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취한 행동은 사실 여부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실 서적 창고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 고레스의 조서를 옹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지원과 열심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정작 성전을 지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데 이방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 성전 일을 끝내리라(15절) : 고레스의 귀환 명령 직후 시작된 성전 재건은 중간에 15년간 중단되었지만 20년 만에 완공되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스 6:7)

Do not interfere with the work on this temple of God. Let the governor of the Jews and the Jewish elders rebuild this house of God on its site. (Ezra. 6:7)

기도제목

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면을 전하는 후임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그가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시고

27

화요일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곳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1~10절).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게 했습니다(11~13절).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필요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게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14~24절).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까지 재판하게 했습니다(25~26절). 이에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27~28절).

당시 바사는 강대국이었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 국고로 모든 것들을 지원했으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세금까지 면제해 주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27절).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새 두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에스라 7장
찬송가 549장

묵상노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스 7:27)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our fathers, who has put it into the king's heart to bring honor to the house of the LORD in Jerusalem in this way(Ezra. 7:27)

• 전제의 물품(17절) : 에스라가 가져간 돈의 일차적인 용도는 제사를 치내기 위한 성전을 치하는 데 사용되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뜻을 두시어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어.
-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 8장
찬송가 249장

묵상노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1~14절).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삼 일 동안 머물며 귀환하는 백성의 인원을 점검했는데, 그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하고 족장들과 명철한 자들을 잇도에게 보내 레위인의 동참을 권면했습니다(15~17절). 에스라는 세상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18~23절). 에스라는 성전에 바칠 예물과 기병들을 운반할 사람들을 선택했고(24~30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31~36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2차로 귀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광야 길을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늘 도둑이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에스라가 그런 위험을 알고서도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스 7:6)였습니다. 때문에 왕에게 병사를 요청했다면 왕은 당연히 그 요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전한 그대로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론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22절) :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악탈을 일삼고 있었기에 보호해 줄 군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스 8:22)

I was ashamed to ask the king for soldier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enemies on the road, because we had told the king, "The gracious hand of our God is on everyone who looks to him, but his great anger is against all who forsake him." (Ezra. 8:22)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주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29

목요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여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을 고발하였는데 거기에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방백과 고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2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3~4절). 에스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에 사로잡혀 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소생시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5~15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옛 조상들의 죄악, 즉 그곳 사람들의 가증한 일(우상 숭배 등)을 본받아 행하고, 그들의 딸을 취하여 혼인하는 등, 거룩한 지존임을 잊고 언약을 모르는 자들과 뒤엉켜 살아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비단 에스라만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저주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되풀이하며 육신의 안락을 위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에스라 9장
찬송가 274장

묵상노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스 9:15)
O LORD, God of Israel, you are righteous! We are left this day as a remnant. Here we are before you in our guilt, though because of it not one of us can stand in your presence." (Ezra. 9:15)

• 더러운 땅(11절) :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들이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는 선언은 율법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참된 회개가 날마다 있게 하시되 회개가 또한 공로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 10장
찬송가 95장

묵상노트

공동체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함께 통곡하였고, 스가나는 주의 교훈을 따라 모든 이방 여인들과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는 일에 에스라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1~4절).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한 일을 지킬 것에 대해 명세를 받은 후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5~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아내들과 갈라 서라는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7~12절). 그러나 그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었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13~15절). 에스라는 사람들을 선임하여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이 조사는 무려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16~17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18~44절).

백성들의 범죄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스가나가 에스라를 찾아가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한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늘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저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준행하는 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떨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기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임한다는 말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음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17절) : 이 달은 오늘날의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인들의 혼인 사태 조사를 약 75일(안식일을 제외한 날에 걸쳐) 끝마친 날이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스 10:2)

Then Shecaniah son of Jehiel, one of the descendants of Elam, said to Ezra, "We have been unfaithful to our God by marrying foreign women from the peoples around us. But in spite of this, there is still hope for Israel. (Ezra.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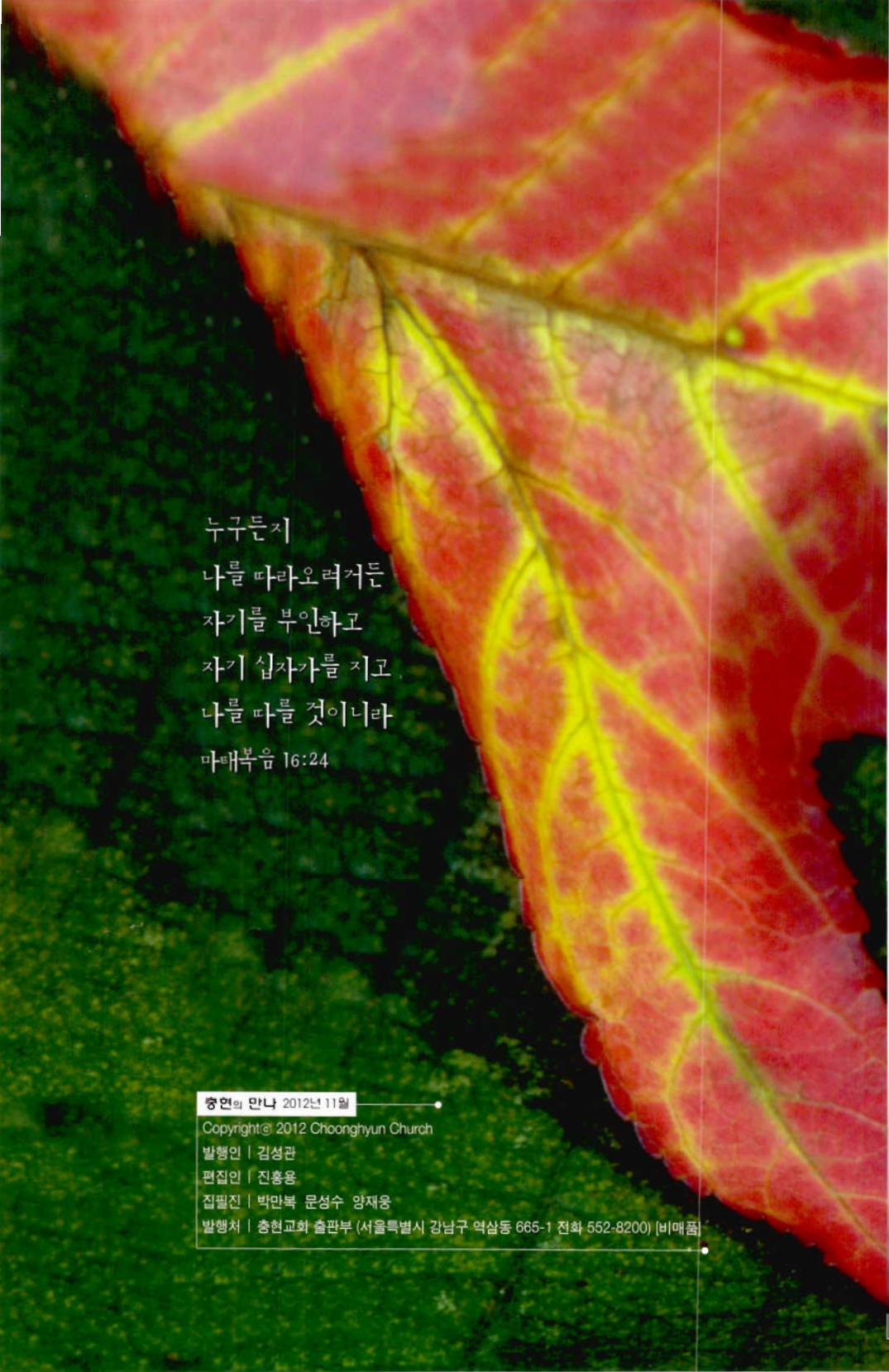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illegibl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11월

Copyright ©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